

오피니언

다산포럼

임현진



인가를 살피지 필요가 있다.

최근 '교수신문'이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10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할 키워드에 대해 전국의 대학교수들에게 탐문을 했다. '복지'가 47.9%, '사회통합'이 44.9%, '양극화'가 36.8%, '저출산·고령화'가 36.0%, 그리고 '통일'이 31.8%의 순서로 중요도가 평가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복수응답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 1순위로 선택된 키워드는 '사회통합'이었고, 2순위가 '복지'였다. 결국 한국사회가 지역, 계층, 세대, 이념, 성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

가 '저출산·고령화'와 '다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져왔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양극화'에 대한 우려와 그 해결책으로 '복지'도 강조되었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비하면 중요도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었다.

작금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여러 대권 후보자들 사이에 각축이 이루어지고, 벌써부터 복잡하고 난해한 예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을 적당히 죽여야 하고, 민주통합당을 후보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거꾸로 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후순도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선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야 하겠다. 대한민국이 처한 국내외적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아래 미래 청사진적 비전을 갖고 적실성 있는 발전전략을 펼 수 있는 지도자가 할 것이다. 자신의 기본색을 지키면서 진영논리를 넘어 시대정신에 맞는 실사구시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

급속한 사회 변동 아래 시대정신은 바뀌게 마련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보수와 진보 사이에 누가 사회 대타협을 이끌 수 있는 통찰력과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 지도자인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5·18 未完의 과제, 피해자 '악몽' 씻어내야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어느덧 32년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산 자'의 고통은 진행형이다. 지난 기간 명예회복, 배상, 기념사업 등 5·18 과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하나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트라우마(Traumat)는 심각하다.

트라우마란 일반적으로 외상(外傷)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극도로 위협하는 정신 상태를 말한다. 이는 5·18 피해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불러온다.

5·18 유공자 지모씨는 지난 2010년 "꿈에 항상 나타나는 군인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고문 후유증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살을 택했다. 2009년에는 5·18 당시 기동타격대원으로 활동했던 한모씨가 목을 매 숨진 데 이어 김모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무자비한 공수부대원들에게 당한 상처와 충격이 환청과 환각으로 되살아난

때문이다. 최근 사망한 5·18 피해자 대부분이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사망했고, 평균 연령이 47세에 불과하다는 계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센터 건립은 요원하다. 그러나 광주시가 지난해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센터 시범사업에 선정, 오는 6월 개소로 목표된 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 건립을 진행 중이라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더라도 트라우마 센터는 정부가 나서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사업으로 추진해야 진정한 의미에 부합된다. 이는 5·18의 '중요 과제'를 이행하는 것이며, "국가는 고문 피해자들의 재활을 위한 치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UN 고문방지협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일도 된다.

5·18이 국가기념일로, 피해자들이 국가 유공자로 지정된 마당에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건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래방 참사' 광주·전남도 남의 일 아니다

언제까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지난 5일 부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화재로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다중참사가 발생해 충격

경하면서 초입구 앞 다용도실을 26번 방으로, 오른쪽 끝 비상구 통로를 1번 방으로 불법 개조까지 했다고 한다.

특히 1번 방을 만들면서 비상구와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접이식 계단도 없앴다고 하니 압주와 사후 점검을 소홀히 한 당국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수백~수천 개의 노래방과 단란주점이 있는 광주와 전남지역도 예외 일 수 없다는 점이다. 광주는 물론 전남 도시들의 노래주점도 건물 내 위치나 구조, 통로 등이 이면에서 사고가 난 부산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든 부산참사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참문 하나 없는 실내는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차고, 뒤늦게 대피하려던 손님들은 'ㅁ'자 형태의 미로 같은 구조 때문에 출입구를 찾지 못해 통로에서 우왕좌왕하다 질식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허가 당시 24개였던 방을 26개로 변

경계 당국에선 노래방과 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철저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임의 개조나 통로 변경 등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폐쇄조치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사후악몽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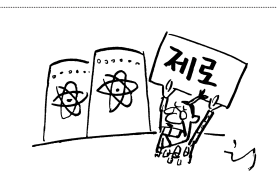
無等鼓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로 전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일본에서 원전 가동이 모두 멈췄다. 지난 5일 일본 원전 54기 중 유일하게 가동 중이던 후쿠이도 전력 도마리(油) 원전 3호기(출력 91.2만kW)가 정기점검을 위해 전력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원전 제로' 상태가 된 것은 지난 1970년 이후 42년 만이다.

원전 제로 상태가 되자 일본 내 반응은 제각각이다. 우선 다가오는 여름 전력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장 냉방이 어려워 국민생활이 크게 불편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제조업에 큰 타격을 불러와 일본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원전 제로 상태가 되자 일본 내 반응은 제각각이다. 우선 다가오는 여름 전력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장 냉방이 어려워 국민생활이 크게 불편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제조업에 큰 타격을 불러와 일본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원전 제로



원전 제로 상태가 되자 일본 내 반응은 제각각이다. 우선 다가오는 여름 전력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장 냉방이 어려워 국민생활이 크게 불편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제조업에 큰 타격을 불러와 일본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를 원전이 맡고 있으며 2030년까지 6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원전의존율이 상당한 우리로서는 비록 정기점검을 위해서지만 원전 전면 중단을 맞은 일본의 상황을 눈여겨 보자. 최근 우리보다 원전에 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부실 부품 공급과 납품비리도 원전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렇다만, 철저한 관리와 운영으로 원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박기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대선, 그 이후가 중요하다

완화되었지만, 강원도와 충청도의 지역주의는 강화되었다. 정당 투표율을 보면 영남권에서는 야권연대의 위세를 볼 수 있었고, 강원도와 충청도에서는 고(故)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와 박근혜 대표의 세종시 '플러스 알파' 발언으로 지역주의가 다시 살아났다.

이번 대선은 총선과 더불어 20년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의 의미를 지닌다. 중대선거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체제를 위한 주춧돌을 마련하는 선거에 다른 것이다. 과연 2012년 대선을 통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과제와 시대 가치는 무엇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복지'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09년 '교수신문'의 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저출산·고령화', '통일', '다문화', '사회통합', 그리고 '복지·양극화'의 순서로 매겨진 바 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는 한국사회 내외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노동력의 고갈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외국으로부터의 노동과 결혼을 위한 이주민의 증가

네팔의 설날 풍경

에서 태어났으나 네팔에서 살다 보니 올해 120세가 넘었다고 농담을 한다.

네팔은 토요일이 공식휴일인데 마침 설날이 금요일이어서 황금연휴인 셈이었다. 설에 우리처럼 고향을 찾는 대선 주위에서는 그 이틀을 위한 여행 계획을 세우느라고 바빴다. 나도 마음이 들떠서 황금연휴를 끼고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열 시간 거리에 있는 탄센의 선교병원에 가서 일주일 간 머물기로 마음을 정했다.

탄센은 고도 1372m에 위치하고 경치가 좋기로 소문난 곳으로 내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맑은 날에는 약 100km 떨어진 안나푸르나 1, 2, 3봉과 베이스캠프, 그리고 마차프차레(물고기 꼬리라는 뜻)까지 볼 수 있었다.

탄센병원은 58년 된 병원에서 각국에서 와서 무료 봉사하는 외국 의료진과 현지인들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외과 의사 김동욱 선생과 김에스터 간호사도 수년째 봉사하고 있었다.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탄센은 인구가 2만3693명인 중소

도시이다. 그러나 인근 각처에서 환자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탄센병원의 연평균 수술이 7000 건 이상이며, 태어나는 신생아는 2000 명이 넘는다고 했다.

병원안내를 받는 중에 화상 환자를, 특히 아이들이 가장 안타까웠다. 네팔 전통 가옥은 방안에 화덕이 있어 어린아이들이 끓는 물이나 불에 데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또 여성들이 '사리'를 입고 조리를 하다가 합성 섬유로 만든 사리 자락에 불이 붙으면 손가락에 불길기 퍼지고 쉽게 옷을 벗을 수도 없어서 화상 정도가 심하다고 한다. 젊은 여성들은 '수르왈'이라는 바지와 상의 '뿔뿔'을 입고 꼭 긴 술을 목에 두른다. 거의 모든 학생들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선호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다형인 것 같다.

설날에는 아침부터 병원 뒷산에서 음악소리가 들려왔다. 수천 명은 필직한 많은 사람이 부처상과 작은 사원이 있는 탄센병원 뒷산에 모여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사막기도 하면서 하루를 즐기고 있었다. 짧은 남녀

네팔에서 온 편지 15



박행순

지난 4월 13일은 네팔의 설날이었다. 영자신문인 "The Kathmandu Post" 1면 상단에는 히말라야와 붉은 해를 배경으로 'Happy New Year 2069'라고 쓰여 있었다. 올해 설이 네팔의 마지막 설일 수도 있다는 기고문도 있었다. 5월 말에는 네팔의 새 헌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고 이에 따라 새로운 네팔은 비크라트 왕조에서 기원한 네팔 달력 대신 세계인들이 통용하는 그레고리안 달력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네팔인들은 자기 나라가 적어도 달력에 있어서는 서기력보다 57년이나 앞선다고 느스레를 떨고, 60대 외국인인 자기가 서양

기고



이상봉

은 국민이 세계박람회 개최되는 동백꽃과 거북선의 도시 여수를 주목하고 있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지구촌 3대 이벤트 중 하나다. 아시아권에서 세계박람회를 개최한 국가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세계박람회

는 인류 신문명의 경연장이자 주요 선진국 국가 발전의 도약대였다. 영국은 1851년 하이드파크에서 세계 최초로 개최한 박람회를 통해 산업혁명의 완성을 알리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영광을 이어나갔다. 여기에 자극받은 프랑스가 1855년 파리엑스포를 시작으로 1900년 까지 다섯 번의 세계박람회를 개최해 세계

여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우리의 준비

박람회의 메카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프랑스를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됐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도 1889년 파리 세계박람회를 위해 건립된 것이다.

또 1886년 미국 필라델피아박람회는 벨의 전화를 소개하고 통신혁명의 시작을 알렸으며, 일본은 1970년 6400만 명이 관람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오사카박람회를 통해 패전국의 이미지를 벗고 전자강국으로 발돋움했다. 1993년 개최된 대전세계박람회도 대전을 교통의 도시에서 연구기술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세계는 지금 해양에서 성장의 동력을 찾고 있다. 한국은 조선산업, 컨테이너 처리량 등 분야에서 세계 수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유럽부흥개발은행 총재를 지낸 자크 아탈리의 지적처럼 해양산업의 소홀이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원인이라는 충고를 받기도 한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93일간 개최되는 여수 세계박람회는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실현하고 우리의 해양기술과 자원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다.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기간 중 1082만 명의 관람객과 12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8만여 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으로 치르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공사 등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매끄러운 진행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또 기업체와 관공서에서는 엑스포 기간이 하계휴가, 여름방학 기간과 겹치는 점을 감안해 휴가를 활용해 직원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자세로 엑스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엑스포 개최 주제인 여수와 전남 지역민들은 대중교통 이용, 바가지 요금 근절, 친절환 안내 등을 적극 실천하는 등 성숙한

봄나들이는 삶과 지혜를 가르쳐 주는 농촌으로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서민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다. 그러나 힘이 들수록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데 농촌지역의 산과 들만한 곳도 없다.

마침 계절도 봄날이 따스하게 내리쬐어는 봄이다.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가서 봄별에 솟아오르는 새싹을 보면서 채소랑 나무도 심고, 아이들은 푸른 들에서 뛰어

놀고, 맑은 공기와 흙내음을 맡으며 휴식을 취하면 일상에 저절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특히 과와나 게임 등으로 가뜰이나 부모와의 대화가 부족한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농촌체험을 통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체험을 같이하게 되면 대화의 창도 열리고 가족을 끈끈하게 연결해 주는 추억거리가 생긴다.

또한 농촌에 가면 나무 옆에서 보자.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일회일비하는 사람과 달리 나무는 제자리에서 묵묵히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있으며 그 나무의 새순을 보면 경외감과 함께 용기와 인내를 배우게 된다.

이렇듯 농촌지역의 산과 들에는 그 자체 만으로도 삶과 지혜를 가르쳐 주는 산 교육장이다. 자연을 벗하며 인생을 배우고 땅을 일구는 즐거움은 우리나라나 외국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국민 절반이 다차(dacha)라는 일종의 주말별장이나 농장을 갖고 있으며 여기서 직접재배한 싱싱한 채소와 제철 과일을

먹으며 휴가와 여름 주말을 보낸다. 프랑스는 일 년에 적어도 5주 이상 휴가를 갖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지트(Gite)라는 농촌민박이 활성화되어 있다. 독일에는 400만 개소에 이르는 체재형 주말농장인 클라인카르텐이 있으며, 일본은 "안전한 먹을거리, 내 손으로 직접 가꾸 먹자"라는 취지의 시민농원이 전국에 3000여 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주말에는 마음의 고향이자 어머니의 가슴인 농촌으로 가자! 거기서 위안을 얻고 인내를 배우며 심기 일철하는 재도와의 계기를 갖자.

▲박세현·농협구미교육원 교수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점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선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선 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